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구 본 관

본고는 규칙과 제약의 관점에서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의미를 논의했다. 2장에서는 파생 규칙에서의 의미를 다루었다. 파생 규칙에서의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구별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검토하여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의 의미 관계와 이를 기술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3장에서는 파생 규칙의 제약과 의미를 다루었다. 파생 규칙에는 다양한 제약이 있고 이들 제약은 예외를 가지기도 한다. 논의의 결과 파생 규칙의 제약을 위반하는 경우는 상당 부분 의미가 다른 제약에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 파생어, 의미, 규칙, 제약, 어기, 접사

1. 서론

언어가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로 이루어졌다는 소쉬르의 명제는 우리가 형태소 이상의 단위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의미 문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41-A00041).

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예언한 것이었다. 단어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화자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필요성에 의해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때 의미는 단어 형성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본고에서는 파생어 형성에서의 의미 문제를 다루어 보려 한다. 지금까지 파생어 형성에서의 의미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생접미사의 의미 기능이 논의되기도 했고, 생성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사이의 관계가 탐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파생어, 어기, 파생 접사의 의미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파악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파생어 형성에서의 의미 문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다음 몇 가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의미'란 추상적인 단위여서 일정한 형식으로 포착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적절한 연구 방법론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는 파생어 형성에서뿐 아니라 언어학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의미 문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지기 어려웠던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의 의미가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파생어의 의미는 어기의 의미에서 파생접사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조어 과정이란 생성 형태론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어휘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파생어가 만들어지고 나면 하나의 완성된 단어로서 통시적인 의미 표류(semantic drift)를 경험하게 되므로 파생어의 의미를 어기와 파생접사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가 쉽

지 않다. 이러한 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파생어 형성에서의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 파생접미사, 파생어의 의미를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구조주의적인 방법, 생성 형태론적인 방법, 인지 언어학적인 유추 중심의 방법 등 파생어 형성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주로 규칙과 제약 중심의 생성형태론적인 방법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이는 규칙과 제약 중심의 논의가 파생어 형성에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른 방법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본고에서는 규칙과 제약의 관점에서 ‘의미’ 문제에 집중하여 파생어 형성 규칙과 규칙 적용에 나타나는 제약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파생어 형성을 규칙과 제약으로 기술하게 되므로 파생어 형성에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다루게 된다. 2장에서는 파생 규칙에서의 의미 기술 방법을 다루게 된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예를 통해 파생 규칙에 참여하는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 각각의 의미를 구별하고, 이들의 관계를 기술하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파생 규칙의 제약들과 의미의 관련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파생 규칙의 제약들을 검토하고 이 제약의 예외들을 의미와 관련하여 설명하게 될 것이다. 자료는 현대국어 파생어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파생어 자료를 이용한다.

2. 파생 규칙과 구성 요소들의 의미 기술

2.1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의 의미 구별

파생어의 의미에는 파생어를 구성하는 어기나 파생접사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삼투(percolation)나 의미역의 상속(inheritance)과 같은 통사 규칙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파생어의 의미를 기술하기는 어렵다.¹⁾ 그렇지만 파생어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든 어기나 파생접사의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므로 우리는 일단 이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파생어 형성에서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 파생어 형성에서의 어기와 파생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는 송철의 (1985)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다. 그는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어기의 사전에서의 의미를 검토하여 그 중 일부 의미만이 파생어 형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파생어에서의 어기의 의미제약’이라 불렀다.

다음의 예를 검토해 보자.

- (1) 굽다: ① 불이나 뜨거운 것에 직접 대어 익히다.(고기 굽는 냄새)
 ② (불에 익혀) 음식을 만들다.(빵을 굽다)
 ③ 솥을 만들다.
 ④ (벽돌, 도자기 등을) 가마에 넣고 불을 때어 만들다.
 ⑤ (바닷물에 햇볕을 쬌거나 불을 때어) 소금을 만들다.

1) 신수송(1998)에서는 독일어를 대상으로 하여 통사 과정과 조어 과정의 의미는 기술 방법을 달리 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1)의 예는 비교적 최근에 편찬된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동사 ‘굽다’의 뜻을 옮겨 온 것이다. 송철의(1985)에 따르면 어기의 의미 중에서 파생어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은 주로 사전의 뜻풀이에서 ①로 표시된 의미라고 한다. 실제로 ‘굽다’를 어기로 하는 파생 명사인 ‘구이’는 뜻풀이에서 ①로 표시된 의미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사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뜻풀이에 반영하므로 어기의 의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①로 표시된 의미가 파생어 형성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송철의(1985)에서는 어기의 의미 중에서 기본적인 의미 내지 사전에서 뜻풀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의미가 화자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의미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의미가 파생어 형성에 참여한다고 보았다.²⁾

하지만 어기의 의미 중 주로 ①의 의미가 파생어에 반영되는 것은 이런 이유 이외에도 사전의 뜻풀이의 속성과도 관련이 되는 듯하다. 국어 사전의 뜻풀이에는 어떤 어휘의 ‘사전 의미’ 외에도 ‘문맥 의미 내지 상황 의미’라 부를 수 있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1)의 예에서도 ‘굽다’의 뜻풀이로 제시된 ①에서 ⑤의 의미 중 일부는 문맥 의미나 상황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파생어 형성에는 문맥 의미나 상황 의미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사전의 뜻풀이에서 주로 먼저 제시되는 사전 의미가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송철의(1985)에 따르면 파생어 형성에서의 어기의 의미가 파생어의 의미에 반영되는 정도는 파생접사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한다.

2) 송철의(1985)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런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뜻풀이가 정확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단어의 뜻풀이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느냐, 어떤 의미를 먼저 배열하느냐 등에서 사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①로 표시된 의미는 많은 사전에서 일치한다. 이는 어떤 단어의 기본 의미는 사전 편찬자나 모어화자에게 대체로 동일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를 어기의 의미가 파생어에서 제약되는 정도의 차이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명사 파생, ‘-개’ 명사 파생, ‘-다탕-’ 형용사 파생의 경우는 어기의 의미 제약이 심한 경우이고, ‘-이’ 부사 파생, 사·파동 파생의 경우는 어기의 의미 제약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 그는 이런 차이를 어휘적 의미를 갖는 접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에서는 어기의 의미가 극히 제약되고 문법적 의미를 갖는 접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에서는 어기의 의미가 비교적 덜 제약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 어기의 의미가 제약되는 정도에 관한 논의를 조어법 전체로 확대하여, 구성 요소의 의미가 출력부 단어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송철의(1985)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파생접사가 어휘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그 파생접사는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 어근에 가깝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파생어의 형성은 구성 요소의 의미 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파생보다는 합성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합성에서는 구성 요소 각각의 의미가 거의 대등하게 참여하거나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파생접사가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는 의미의 관점에서만 보면 조사나 어미 같은 굴절 요소에 가까우므로 이런 접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은 구성 요소의 의미 중 어기의 의미만이 주로 파생어의 의미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

다음으로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는 혼란스럽게 기술되기도 하였다.

3) 합성과 파생을 포함하여 구성 요소 중 한 쪽의 의미(파생에서는 주로 어기의 의미)가 출력부 단어 전체의 의미에 반영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합성(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 단어형성 전용 요소에 의한 단어 형성 < 파생(어휘적 접사에 의한 파생 < 문법적 접사에 의한 파생) < (굴절)’ 등으로 순서화할 수 있을 듯하다.

먼저 파생접두사의 의미가 어기의 의미와 혼란스럽게 기술된 예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 (2) 가. 기력 - *기력하다 - 무기력 - 무기력하다
 나. 질서 - *질서하다 - 무질서 - 무질서하다
 (3) 가. 의식 - 의식하다 - 무의식 - *무의식하다
 나. 계획 - 계획하다 - 무계획 - ?무계획하다

(2)와 (3)의 예는 조현숙(1989)에서 가져 온 것이다.⁴⁾ 조현숙(1989)에 따르면 (2)에서 접미사 ‘무(無)-’는 [-상태성], [-동작성]을 가지는 어기 ‘기력, 질서’에 결합하여 어기가 [+상태성]을 가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력하다”라는 형용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무기력하다’라는 형용사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3)에서 접미사 ‘무(無)-’는 [-상태성], [+동작성]을 가지는 어기 ‘의식, 계획’에 결합하여 동작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식하다’라는 파생 동사는 가능하지만 ‘무의식하다’라는 파생 동사나 파생 형용사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현숙(1989)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국어의 파생접두사가 파생접미사와는 달리 파생어의 형식적인 핵이 되지 않고 문법적인 성질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의 예외로 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⁵⁾ 하지만 (2)나

4) 조현숙(1989)에서는 한자어 접두어 ‘無, 不, 未, 非’ 등의 의미 기능을 어기의 상적 특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다.

5)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국어는 통사 규칙이나 조어 규칙의 적용에 있어 이른바 우측 머리 규칙(right head rule)을 잘 지키는 언어이다. 따라서 왼쪽에 오는 요소인 접두사가 핵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김창섭(1992)에서 지적한 대로 ‘매(每)-’와 같이 명사를 부사화하거나(매일, 매주, 매월), ‘대(對)-’와 같이 명사를 관형사화하는 경우(대일 정책, 대미 정책)가 있다. 그러나 ‘매(每)-’가 그런 속성을 가지는 것은 명사의 반복이 부사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대(對)-’가 그런 속성을 가지는 것은 명사가 제한적으로 쓰이면 관형

(3)의 예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접두사인 ‘무(無)-’가 여기에 [상태성]의 상적 의미를 더해 주기도 하고 [동작성]의 상적 의미를 소멸시키기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기술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동작성]이나 [상태성]의 의미는 접두사가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어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에서 예시된 것 중 한 예만 들어 설명하자면, 어기 ‘계획’은 [동작성]의 의미를 주로 가지지만 [상태성]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 ‘계획하다’와 같은 동사도 만들어지지만 ‘무계획’과 같은 동작성을 가지지 않는 명사나 다소 어색하지만 여기에 ‘-하다’가 더해진 ‘⁷무계획하다’와 같은 형용사를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⁶⁾

파생접두사뿐 아니라 파생접미사의 의미가 어기의 의미와 관련하여 혼란스럽게 기술되기도 했다.

(4) 자유롭다, 자비롭다, 평화롭다 ; 보배롭다

(5) 자연스럽다 - 자연적

(4)의 예에 나타나는 ‘-롭-’은 대체로 [+추상성]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철의 1989/1992:207).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배롭다’처럼 [-추상성]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와도 결합하는

사가 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접두사가 [상태성]이나 [동작성]과 같은 의미자질을 바꾸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 6) 특히 한자어의 경우 ‘입학(入學), 독립(獨立), 일출(日出)’ 등 동작성을 갖는 이른바 동작명사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은 ‘하-’와 결합하여 동사를 만드는데, 이런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에서 의미는 어기인 명사가 담당하고 ‘하다’는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형식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동작명사류는 대체로 [동작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이 가지는 동작성은 어디까지나 명사로 대상화된 동작성이므로 적절한 문맥이 주어지면 이들은 [상태성]의 의미를 갖는 명사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데, 이에 대해 ‘-롭-’이 [-추상성]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와 결합하면 이 명사의 속성을 [+추상성]으로 바꾼다고 기술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술하면 파생접사가 어기의 의미 자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는 셈이다. 하지만 파생접사가 이런 기능을 갖는 것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어기 ‘보배’가 원래 [-추상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추상성]의 자질을 갖기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의 예는 김창섭(1984)에서 형용사 파생접미사 ‘-스럽-’과 ‘-적(이다)’ 구성이 저지를 이룬다는 것의 예외로 제시된 것이다. 김창섭(1984)에서는 이와 같이 저지의 예외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기인 ‘자연’이 [실체성]을 가진 자연₁과 [상태성]을 가진 자연₂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의 예 역시 파생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파생접사가 어기의 의미 자질을 바꾼다는 식의 기술보다는 어기가 원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 준다.⁷⁾ 우리는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가 혼란스럽게 기술된 예를 들어 보았다.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적절하게 구별하여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생접사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파생접사의 의미는 파생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혼란스럽게 기술하기도 하였다. 간단한 예 몇 가지만 살펴보자.

(6) 가. -궂-: 어기의 상태가 더 심해짐.

나. -닐-: 어기가 한가하게 움직이는 모양.

다. -치-: 비의도성(‘놓치다’의 경우), 대상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됨(‘덮치다’의 경우), 거부(‘뿌리치다’의 경우), 어떤 기준에서 벗어

7) 물론 파생접사 특히 파생접미사 중에는 피·사동사 파생접미사처럼 어기의 통사의미 자질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남('넙치다'의 경우)

(6)의 예는 이경우(1981)에서 가져온 것인데, 파생접사의 의미를 파생어의 의미에서 추출해 내고 있다. 그리하여 (6다)와 같이 불규칙적인 파생어의 경우 너무나 다양한 의미가 추출된다. 이경우(1981)에서뿐 아니라 많은 논의에서 파생접사의 의미는 파생어의 의미로부터 뚜렷한 원칙 없이 추출되어 왔다. 이는 파생접사의 의미를 파생어의 의미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⁸⁾ 그러나 파생접사의 의미는 파생어의 의미로부터 분리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 기존의 논의들 중에는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의 의미가 잘 구별되지 않아 혼란스럽게 기술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각각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파생어 형성에서의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기, 접사, 파생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의 의미 관계

우리는 2.1의 논의를 통해 주로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 파생접사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가 혼란스럽게 기술되어 왔고 이들을 구별하여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제 이들 세 요소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여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의 의미를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8) 김창섭(1992)에서는 '-꾼'에 의한 파생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파생접사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기존의 논의에서 파생어의 의미는 어기의 의미에 파생접사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설명되었다.⁹⁾ 하지만 이미 김창섭(1992:79)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파생어의 의미에는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 쓰이면서 새로이 얻거나 잃은 부분이 생긴다는 사실(즉 의미론적 어휘화 혹은 의미 표류)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파생어의 의미를 어기의 의미에서 파생접사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의미론적인 어휘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공시적으로 생산적인 파생 규칙에 의한 파생어에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 그런데 공시적으로 생산적인 파생 규칙에 의한 파생어도 하나의 단어로 쓰이면서 새로운 의미를 얻거나 잃을 수가 있다. 따라서 파생어의 의미를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만 기술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송철의(1985)에서 파생어 형성에서의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를 논의하면서 어기의 의미 중 일부만이 파생어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밝혔음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파생접사의 의미가 파생어에 반영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에서 어기와는 달리 파생접사는 대체로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루어졌다. 그렇다면 파생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7) X(\text{변수, 어기의 의미}) + Y(\text{상수, 접사의 의미}) \rightarrow f(X, Y)(\text{파생어의 의미})$$

그런데 다음의 예들은 파생어 형성에서 어기뿐 아니라 파생접사도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가지 의미가 파생어 형성

9) 김창섭(1992)에서는 “어기와 파생어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파생접사의 의미는 파생어의 의미와 어기의 의미를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준다.

- (8) 가. 봄맞이, 보막이, 털갈이, 쥐불놀이
 나. 재떨이, 옷걸이, 목걸이
 다. 구두닦이, 신문팔이, 때밀이

(8)은 예는 송철의(1989/1992:129)에서 [N + V + -이]에 의한 파생어의 예로 제시된 것들이다. (8가)의 예에 나타나는 접미사 ‘-이’는 ‘…하는 행위 또는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8나)의 예에 나타나는 접미사 ‘-이’는 ‘…하는 데에 사용하는 물건 또는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8다)의 예에 나타나는 접미사 ‘-이’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진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의미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8)의 예에 나타나는 ‘-이’가 모두 동일한 접미사인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는 동일한 접사로 생각된다.¹⁰⁾ (8)에 나타나는 ‘-이’를 동일한 접사의 다의적인 용법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기의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와 기본적인 것에서 파생된 의미로 나누었듯이 파생접사의 의미도 기본적인 의미와 그 기본적인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8)의 파생어에서 나타나는 ‘-이’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는 행위 또는 사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본 의미에서 ‘…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의미나 ‘…하는 물건 또는 도구’의 의

10) 국어에서 가장 다양한 기능으로 쓰이는 접미사는 ‘-이’가 아닌가 한다. ‘-이’ 중에는 동사 어간에 결합하는 것도 있고, 명사와 동사의 합성어 내지 구 구성에 결합하는 것도 있고, 형용사에 결합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나 동물 이름에 결합하는 것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동음이의접사이고 일부는 다의접사인 것으로 생각된다. 동음이의접사와 다의접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단일 어기 가설, 단일 출력부 가설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재인(1989), 구본관(2001)을 참조하라.

미가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의미는 선행하는 어기와 관계에 따라 더 다양하게 세분될 수도 있다.¹¹⁾

일반적으로 파생접사는 (8)의 예들에 제시된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8)의 예들에서 제시된 ‘-이’는 ‘…하는 행위 또는 사건’의 의미만 가지고 있고, (8나), (8다)의 파생어들은 원래 (8가)와 같은 ‘…하는 행위 또는 사건’의 의미를 가지던 파생어가 후에 의미 변화를 입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8나), (8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 파생어들이 (8가)처럼 ‘…하는 행위 또는 사건’의 의미를 갖는 파생어에서 발달했다는 통시적인 증거가 없고 공시적으로도 (8나), (8다)처럼 ‘…하는 데에 사용하는 물건 또는 도구’, ‘…하는 사람’의 의미를 갖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파생접사에는 ‘-기, -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파생접사의 의미를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다른 의미가 파생되어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어기와 마찬가지로 파생접사도 파생어 형성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의미 중 특정 의미가 참여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파생접사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까지를 고려하면 파생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11) 파생접사의 의미를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점차 다른 의미로 나아가는 것으로 기술한 논의도 있다. 예를 들어 조일규(1993:70-74)에서는 중세국어의 ‘-이’의 의미를 ‘…하는 일’이라는 중심적인 의미에서 ‘…하는 행위의 특성이 있는 사물’, ‘…하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사물’, ‘…하는 행위의 특성이 있는 사람’, ‘…하는 행위의 특성이 있는 장소’, ‘…하는 행위의 특성이 있는 시간’, ‘…하는 행위의 특성이 있는 현상’ 등의 의미가 파생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9) X(변수, 어기의 의미) + Y(변수, 접사의 의미) --> f(X, Y)(파생어의 의미)
- (10) X(변수, 어기의 의미) + Y(변수, 접사의 의미) + (α)(파생어가 되면서 생기는 변화) --> f(X, Y)(파생어의 의미) + (β)(파생어 형성 이후의 의미 변화)

즉, (7)의 함수는 여기뿐 아니라 접사도 다양한 의미 중에서 하나가 선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기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 모두를 변수로 가지는 (9)와 같은 함수로 대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파생어가 되면서 구성 요소의 의미 이외의 것이 더해질 수 있고 파생어 형성 이후에 의미 표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α와 β 항을 더 설정하면, 파생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함수는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²⁾

이제 간단한 파생어의 예를 들어 (10)의 함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기로 하자.

- (11) 가. 봄: ①새싹이 돋고 꽃이 피며 날씨가 따뜻해지는 겨울 다음의 계절.
 ②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새롭게 오는 희망의 날들.
 나. 맞다: ①(오는 사람을) 예를 갖추어 받아들이다.
 ②(오는 때를) 대하다.
 ③어떠한 상황을 만나다.
 ④(식구들) 새로 들이다.
 ⑤(주로 ‘맞아’꼴로 쓰이어) 누구를 상대로 하다.
 다. -이: ① ‘...하는 행위 또는 사건’
 ② ‘...하는 데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도구’
 ③ ‘...하는 사람이나 사물’

12) 파생어가 되면서 생기는 의미 변화나 파생어가 만들어진 이후의 의미 변화는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괄호를 한 (α), (β)로 나타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생어는 많은 적든 파생어 형성될 때 혹은 파생어가 된 후에 의미 변화를 경험한다.

라. 봄맞이₁: 봄을 맞이하는 일.

라'. 봄맞이₂: 앵초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잎은 사방으로 퍼지며, 4~5월에 흰 꽃이 뿜. 봄맞이꽃.

(11)은 파생어 ‘봄맞이’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구성 요소 각각과 파생어의 의미를 나열해 본 것이다.¹³⁾

봄맞이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봄 ①’과 ‘맞다₃ ②’의 의미가 선택되어 어기 ‘봄맞-’이¹⁴⁾ 형성되고, 여기에다 접사 ‘-이 ①’의 의미가 합쳐져서 봄맞이₁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봄맞이₂의 경우 어기 의미는 봄맞이₁과 동일하게 선택되지만 접사는 ‘-이 ③’이 선택되어 파생어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봄맞이₁과는 달리 봄맞이₂의 의미는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의 합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봄맞이₂’는 ‘봄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사물’ 모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⁵⁾ 특정한 식물이라는 의미는 (10)에서의 α, 즉 파생어가 되면서 생기는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13) (11가, 나)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 (11라)는 《국어대사전(금성판)》에서 가져왔고, (11다)는 필자가 임의로 나열해 본 것이다.

14) ‘봄맞-’이 구인지 합성어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논의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15) 익명의 논평자는 ‘봄맞이₂’의 의미가 ‘봄맞이₁’에서 ‘의미의 특수화’가 일어난 것만 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봄맞이₂’는 ‘봄맞이₁’과는 달리 파생접사 ‘-이’의 ③의 의미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봄맞이₁’과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파생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16) 파생어가 되면서 생기는 의미 변화란 파생어의 의미가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의 합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파생어의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의 합으로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해 주었듯이 파생이 굴절과는 달리 화자가 필요한 경우 그 의미칸에 맞추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α’는 불필요한 요소이고 파생어의 의미는 합수 ‘f(X, Y) + (β)’로 나타내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파생어의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의 합으로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

이제 파생어가 만들어지고 난 후의 의미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 보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파생어가 완성되고 나면 하나의 단어로서의 의미 표류를 경험하기도 한다.

(12) 옷걸이: 옷을 걸도록 만든 물건. 의가(衣架).

(12') 가. 옷걸이에 옷을 걸다

나. 그는 옷걸이가 참 좋다.

‘-이’에 의한 파생어 ‘옷걸이’는 대부분의 사전의 뜻풀이에는 (12'가)의 의미만 반영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얻어진 의미로 생각되는 (12'나)의 의미는 β , 즉 파생어가 만들어진 이후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파생어가 만들어진 이후의 의미 변화로 이해할 수 있는 예에는 송철의(1989/1992:43-49) 등에서 언급된 ‘노름’이나 ‘굳이, 고이’ 등과 같은 의미론적인 어휘화를 입은 것들이 있다.

3. 파생 규칙의 제약과 의미

3.1 파생 규칙과 제약들

우리는 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파생 규칙에서의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를 논의해 보았다. 이제 파생 규칙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을 검토해 보고 이들 제약에 미치는 의미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 제약들 간의 관계나 각각의 제약에 미치는 의미의 역할을 검토하기에 앞서 파생 규칙의 제약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

해 ‘a’를 그대로 두기로 한다.

기로 한다.

파생 규칙에 있어서의 제약은 송철의(1988)에서 자세하게 언급된 바가 있다. 파생 규칙에 적용되는 제약은 음운론적 제약, 형태론적 제약, 통사론적 제약, 의미론적 제약 등으로 나뉜다. 본고에서는 송철의(1988)에 언급된 논의를 중심으로 이들 각각의 제약에 대해서 논의하되 몇 가지를 보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의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해 파생접사와 어기의 결합이 제한되는 경우를 음운론적인 제약이라고 한다. 국어 파생 규칙에 적용된 음운론적인 제약의 대표적인 예는 명사 파생접미사 ‘-이’가 어기의 발음이 자음인 경우에만 결합한다는 것이다. 사실 파생접사가 음운론적인 제약을 가지게 된 것은 통시적으로 보면 파생접사의 이형태 중의 하나가 독자적으로 파생접사로 발달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현대국어의 ‘-롭-’과 ‘-답₂-’ 그리고 ‘-되-’가 음운론적인 제약을 가진 이유는 이들이 통시적으로는 한 형태소의 이형태에서 각각 다른 파생접사로 발달했기 때문이다.¹⁷⁾ 국어의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도 통시적으로는 이형태를 이루던 ‘-이’와 ‘-기’ 중에 ‘-이’만이 파생접미사로 발달했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와만 결합하는 음운론적인 제약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⁸⁾ 그 밖에도 음운론적인 제약에는 어기의 음절수에

17) ‘-답₂-’란 구가 아닌 단어 이하의 단위에 결합하는 ‘-답-’을 말한다(김창섭 1984). 현대국어의 ‘-롭-’, ‘-답₂-’, ‘-되-’가 중세국어에서 한 형태소의 이형태였고, 현대국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고, 의미가 유사하므로 이들을 공식적으로도 한 형태소의 이형태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상보적 분포에는 예외가 있고, 생산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며, 이들을 이형태로 볼 수 있는 음운론적인 유연성도 상실되었으므로 각각을 다른 접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구본관(1996/1998)’에는 중세국어의 형용사 파생접미사 ‘(-듭-)’의 이형태와 이들 이형태가 현대국어에서 각각 다른 파생접미사로 발달해 가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18) 구본관(1996/1998:131-138)에서는 중세국어 이후 ‘-이’와 ‘-기’의 통시적인 발달

대한 제약이 있다.¹⁹⁾

여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형태 자질이나 여기가 포함하고 있는 특정 형태소가 파생어 형성 규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현상을 형태론적인 제약이라 한다.²⁰⁾ 국어 파생 규칙에서 여기의 형태 자질과 관련한 형태론적인 제약은 접미사 ‘-적(的)’이 [+한자어] 여기와 결합한다는 언급을 제외하면 별로 논의된 바가 없다. 송철의(1988)에서는 특정 형태소가 파생어 형성 규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론적인 제약의 예로 색채 형용사가 가진 제약들을 언급하고 있다. 즉 색채 형용사 중에는 ‘붉-, 푸르-, 누르-’ 등과 같은 유형과 이에 ‘-얇-(통시적으로 보면 -아/어 호-)’이 결합한 ‘빨강-, 파랑-, 노랑-’ 등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파생접두사 ‘새-/시-(새-/잇-)’이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제약이 나타나는 것은 채도의 강화라는 의미 기능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²¹⁾

여기가 가지고 있는 통사론적인 정보가 파생 규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현상을 통사론적인 제약이라 한다. 통사론적 제약 중에서 대표적인 것에는 파생 규칙의 여기가 일정한 통사 범주만을 가지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은 이른바 단일 어기 가설(Unitary Base Hypothesis)로 잘 알려져 있다.²²⁾ 한편 파생 규칙의 여기는 통사 범주뿐 아니라 하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19) 파생접사 ‘-거리-’와 ‘-대-’의 여기는 1음절인 경우가 없다(조남호 1988).

20) 사실 형태 자질에 의한 제약과 특정 형태소에 의한 제약은 성격이 달라서 같이 묶어 형태론적 제약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형태론적 제약에 쓰이는 ‘형태론적’이라는 표현은 ‘형태론적인 이형태’, ‘형태론적인 어휘화’라고 했을 때와 다른 의미로 쓰여 혼동의 여지가 많다.

21) 이를 형태론적인 자질로 볼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새-/시-(새-/잇-)’이 ‘빨강-, 파랑-, 노랑-’ 등에만 결합하는 것은 이 접두사가 원래 색채 형용사의 채도를 강화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채도가 약한 ‘붉-, 푸르-, 누르-’에는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구본관 1998b).

위 범주 자질(자동사 타동사 등)의 제약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생 규칙의 통사론적인 제약에 대해서는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특질이 파생 규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현상을 의미론적인 제약이라 한다. 송철의(1977, 1988)에서는 척도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이’가 어기로 정도성이 큰 것만을 가진다는 의미론적인 제약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송철의(1988)에서는 의미론적인 제약으로 타동사에 결합하는 접두사 ‘짓-’이 ‘목적어의 상태변화를 초래하는 어기’에만 결합한다는 것과 부사 파생의 접미사 ‘-이’가 섹채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의미론적인 제약인지는 명확하지 않다.²²⁾

파생 규칙에는 위에서 언급한 어기에 대한 제약 이외에도 출력부인 파생어에 대한 제약도 있다. 출력부에 대한 제약으로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저지(blocking)이다. 국어 파생 규칙에 나타나는 저지 중에서 재미 있는 예는 김창섭(1984)에서 언급한 접미사 ‘-적(的)’에 의한 파생 명사와 ‘-스럽-, -답-, -롭-, -하-’에 의한 파생 형용사가 서로 저지 관계

22) 단일 어기 가설(Unitary Base Hypothesis)은 Aronoff(1976)에서 언급된 이래 Scalise(1984)에서 수정되어 제안된 바 있다. 이를 국어의 파생 규칙에 적용한 구본관(1998a)이 참조된다.

23) ‘짓-’과 결합하는 어기는 ‘밟-, 이기-, 누르-, 씹-’ 등인데 이들 타동사가 모두 상태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짓-’이 ‘마구, 함부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짓-’에 의한 파생어가 상태 변화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기의 의미론적인 제약으로 보기보다 파생접사의 의미가 파생어의 의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붙-, 겹-, 빨강-, 가랑-’ 등과 같은 섹채 형용사가 부사 파생 접사 ‘-이’의 어기가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론적인 제약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의미론적인 제약은 대체로 어떤 의미론적인 동기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중세국어에서는 “蒼生은 퍼러히 살씨니<금강경육조해 80>”에서처럼 섹채 형용사가 ‘-이’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했다.

를 보이는 현상이다.²⁴⁾

3.2 파생 규칙의 제약들과 의미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의미가 단어 형성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파생접사와 결합할 때 어기나 접사의 의미가 제약되기도 하고, 의미론적인 제약을 가지기도 하는 등 의미는 파생 규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미는 파생 규칙의 여러 제약들의 예외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3.1을 통해 파생 규칙에서 나타나는 제약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통사론적인 제약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제약들에 나타나는 예외들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제약들에 의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파생접두사의 경우 통사론적 제약의 하나인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구본관 1998a).

- (13) 가. 덧가지, 덧거름, 덧그림, 덧니, 덧버선
나. 덧걸다, 덧나다, 덧달다, 덧입히다

(13)의 예는 파생접두사 ‘덧-’이 명사와 동사를 어기로 하는 파생 규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접두 파생 규칙에서는 단일 어기 가설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접두사가 파생어 형성에 참여할 때 주로 문법적인 자질보다는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접두사는 통사론적인 제약을 어기면서 명사나 동사를 어기로 하는 파생

24) ‘-적’에 의한 파생 명사가 ‘-스럽-, -답2-, -롭-, -하-’에 의한 파생 형용사와 저지 관계를 보이는 것은 ‘-적’이 이른바 계사 ‘-이(다)’와 결합하여 형용사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규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²⁵⁾ ‘덜-’을 제외하고도 명사와 동사 혹은 형용사를 어기로 가지는 접두사의 예에는 ‘엇-, 짓-, 치-, 맞-’ 등이 있다.

접두사의 경우처럼 많지는 않지만 접미사도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예가 나타난다.

- (14) 가. 덮개, 가리개, 끌개, 깔개
나. 뿔이개, 털이개, 노리개
나'. 부침개

(14나')의 '부침개'에 쓰인 '-개'가 (14가, 나)에 쓰인 '-개'와 동일한 파생접미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4가)와 (14나)는 일단 동일한 파생접미사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파생접미사 '-개'가 동사와 명사를 어기로 하는 파생 규칙에 참여하여 단일 어기 가설을 어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파생접미사에는 '-개' 외에도 '-보, -성(性), -질' 등이 있다(구본관 1998a).

파생접미사가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이유도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보'에 의한 파생 규칙을 중심으로 파생접미사가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15) 가. 울보, 먹보, 약보
나. 겁보, 피보, 털보, 떡보
나'. 느림보, 곰보

25) 김창섭(1992/1996:17-18)에서는 각주를 통해 접두사 '헛-'이 관형사적으로 어기를 수식하거나 부사적으로 어기를 수식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헛-'이 관형사나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접두사는 문법적인 자질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 똥보, 똥똥보, 똥똥보

라. 늘보, 째보, 갈보

(15)의 예는 송철의(1989/1992:171-172)에서 언급된 ‘-보’ 파생어의 예를 재분류한 것이다. (15가)는 동사나 형용사를 어기로 하고 있고, (15나)는 명사를 어기로 하고 있고, (15나’)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명사성 어근을 어기로 하고 있고, (15다)는 부사성 어근을 어기로 하고 있다.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에 의한 파생 규칙이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은 파생 규칙이 적용될 때 어기의 통사 범주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15)의 어기가 비록 통사 범주에 있어서는 동사, 명사(혹은 명사성 어근), 부사성 어근으로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인성(human)] 혹은 [+유정성(animate)]의 자질과 관련이 있다. 어기가 동사나 형용사인 (15가)의 경우는 이들 동사나 형용사의 행위자주(agent) 의미역을 상정할 수 있는데, ‘-보’를 갖는 파생어의 어기들은 이 행위자주가 [+인성]이나 [+유정성]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15나, 나’, 다)의 경우는 어기가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므로 이런 설명이 가능하지 않지만 각각의 어기를 ‘겁이 많다’, ‘피가 많다’, ‘털이 많다’, ‘떡을 좋아하다’, ‘느리다’, ‘얼굴이 붉었다’, ‘똥똥하다’, ‘똥똥하다’ 등과 같은 서술어로 환원하면 이들도 행위자주로 [+인성]이나 [+유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은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고 있지만 의미적인 공통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와 같이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파생접미사는 문법적인 의미보다는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경우가 많다. 어휘적인 의미가 강할 경우 파생접미사는 어근과 거의 유사한 속성을 띠게 되므로 이런 파생 규칙은 합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합성어의 경우는 구성 방식이 파생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²⁶⁾ 합

성어가 다양한 구성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과거의 통사 구성이 화석처럼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성 요소의 통사 범주가 어떠한 적절한 의미 관계가 주어지지만 하면 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런 이유로 어휘 의미를 강하게 띠는 파생접사가 포함된 파생의 경우도 합성처럼 단일 어기 가설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파생 규칙에서 의미가 원인이 되어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예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가설은 지켜진다. (15나)의 ‘느림보’의 경우 어기로서 명사형 내지 명사성 어근으로 볼 수 있는 ‘느림’이 선택되고 ‘느리-’가 선택되지 않는 이유는 ‘-보’가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를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기를 명사로 통일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음의 예를 검토해 보자.

(16) 가. 갈림길, 볍음밥, 보기신경, 맺이관, 감이상투

나. 디딜방아, 땀뿜, 건넌목

다. 먹음직스럽다, 높직하다

(16가)는 이른바 잠재어가 선행 요소로서 명사 합성에 참여한 예이고 (김창섭 1994/1996:27), (16나)는 선행 요소인 동사와 후행 요소인 명사 사이에 ‘aoristic ㄹ’이 개재되어 형성된 합성 명사이다. (16가)에서의 잠재어를 만드는 ‘-음’, ‘-기’나 (16나)에서의 ‘aoristic ㄹ’이 없어도 합성어

26) 합성 명사를 예로 들어 보면 ‘명사 + 명사’, ‘명사 + ㅅ + 명사, 관형사 +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용언 어간 + 명사, 부사 + 부사, 명사 + 명사성 어근, 부사 + 명사, 부사성 어근 + 명사’ 등 다양한 구성 방식을 갖는다(이익섭·채완 (1999:71)).

가 만들어질 수 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기’나 ‘aoristic 르’이 쓰인 형식이 쓰이게 된 것은 합성이나 파생에서 의미에 의해 통사적인 제약을 위반할 수는 있으나 가능한 한 통사적인 제약을 위반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통사 구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16다)에 나타나는 ‘-음직-’, ‘-직-’과 같은 이른바 어근 형성 접미사의 존재도 단어 형성에 있어서 통사적인 제약을 지키려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파생 규칙의 어기의 통사 범주가 통시적으로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런 통시적인 변화에도 의미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17) 가. 솔히 덥고 안히 답답거늘<월인석보 2:51>
 나. 내 이제 흰히 즐겁과라<법화경언해 2:138>
 (17') 가. 물기 시드러운 모리<두시언해 20:13>
 나. 말쑤미 보드라바<석보상절 13:40>
 (18) 가. 너그럽고<이언언해 4:48>
 나. 근지럽스외다<재간교린수지 2:12>

중세국어에서 파생접미사 ‘-압/업-’은 (17)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i)’나 ‘ㅣ(j)’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알려져 있다(구본관 1996/1998:210-216). 하지만 (17')에서 볼 수 있듯이

27) ‘동사 어간 + 명사’ 합성어의 예로는 ‘덮밥, 접칼, 접바둑, 목발’ 등이 있다(이익섭·채완 1999:71).

28) (16가) 단어들에 포함된 잠재어가 현대국어의 어느 단계에서 실제로 존재한 단어였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16나)와 같이 ‘aoristic 르’이 쓰인 이유를 관형사형 ‘-르’의 현대국어 이전의 어느 단계에서의 용법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구성은 조어 과정에서 ‘용언 어간 + 명사’ 구성의 합성어보다는 형식적이거나 더 일반적인 구성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의 품사가 명확하지 않고 ‘이(i)’나 ‘ㅣ(j)’로 끝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이현희(1987)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중되지 않지만 “시드리-”, “서느리-”를 여기로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18)의 예는 석주연(1995)에서 근대국어에서 발견되는 ‘-압/업-’의 예로 든 것이다. 석주연(1995)에 따르면 근대국어에서는 ‘-압/업-’이 동사보다는 주로 의성·의태어 부사(혹은 부사성 어근)를 여기로 하며 ‘이(i)’나 ‘ㅣ(j)’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한다는 음운론적인 제약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국어의 ‘고맙다’와 같은 예를 고려하여 ‘-압/업-’이 명사를 여기로 갖는다고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지양 1988).²⁹⁾

통시적으로 여기의 통사 범주가 주로 동사에서 부사나 부사성 어근으로 바뀌게 된 것은 중세국어에서 ‘-압/업-’의 어기로 쓰이던 단어의 일부가 폐어화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의 통사 범주가 바뀌게 된 다른 이유는 중세국어에 이미 ‘-압/업-’이 ‘붓그럽-, 어즈럽-’ 등과 같이 어떤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거나 ‘보드럽-, 뭇그럽-’과 같이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대국어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던 동사가 사라지고 이런 의미는 주로 의성·의태어 부사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사론적인 제약뿐 아니라 음운론적인 제약, 형태론적인 제약, 출력부 제약에 위반되는 예들 중에도 의미와 관련해서 설명되는 것들이 있다.

(19) 봄맞이, 쥐불놀이, 가을걷이 ; 글짓기, 보물찾기, 줄넘기

(20) 심적 ; [?]마음적

(21) 자비롭다/자비스럽다, 경사롭다, 경사스럽다, 신기롭다/신기스럽다,

29) ‘고맙다’의 경우 이미 중세국어에서 ‘고마온<소학언해 3:16>’으로 나타난다. 이는 명사 ‘고마’와 ‘-압/업-’이 결합한 것이 아니라 동사 ‘고마흐다’에 ‘-ㅁ’이 결합한 ‘고마흙-’의 축약된 것으로 생각된다.

보배롭다/보배스럽다, 폐롭다/폐스럽다, 자유롭다/자유스럽다, 평화롭다/평화스럽다

(19)은 동사(구)에 결합하여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파생하는 ‘-이’와 ‘-기’의 예이다. ‘-기’는 중세국어에서는 ‘-이’와 이형태를 이루면서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 뒤에 결합했지만 점차 각각 다른 접미사로 발달했고, 이후 접미사 ‘-이’는 의미 기능이 쇠퇴하게 되고 ‘-기’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는 비슷한 의미 기능을 보이던 ‘-기’로 합류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³⁰⁾ 결과적으로 ‘-기’는 통시적으로 의미 기능이 유사한 접미사를 합류시켜 자신의 음운론적인 제약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19)에서 볼 수 있듯이 자음 뒤에서도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20)은 한자어와 결합하는 ‘-적(的)’이 구어체에서 ‘²마음적’처럼 고유어 어기와 결합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형태론적인 제약을 위반하는 것은 의미의 동일성에 의한 유추가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21)는 송철의(1989/1992:209)에서 동일한 어기가 ‘-롭-’과 ‘-스럽-’ 모두와 결합하는 예로 제시한 것이다. 명사를 어기로 형용사를 파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저지 관계를 이룰 법한 ‘-롭-’과 ‘-스럽-’이 이처럼 동일한 어기와 동시에 결합하는 것은 송철의(1989/1992)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 등장한 ‘-스럽-’의 생산성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접사들이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저지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에는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30)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가진 접미사가 통시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합류되는 현상은 꽤 많이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형용사를 어기로 척도명사를 파생하던 ‘-인/의’는 차츰 ‘-이’로 합류되었고, ‘-이’도 차츰 ‘-기’에 합류하여 현대국어에서 척도명사의 파생은 거의 ‘-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파생 규칙에서 통사론적 제약을 중심으로 여러 제약에 대한 예외가 의미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의미’는 파생어 형성의 모티브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제약에도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주로 통사론적인 제약의 위반과 의미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다른 제약의 위반도 이런 관점에서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제약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³¹⁾

4. 결론

파생어 형성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생어 형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생어 형성에서의 의미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파생어 형성 논의에서는 주로 음운론적인 문제, 형태·통사론적인 문제가 논의되었을 뿐 의미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의미가 추상적인 단위여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방법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규칙과 제약의 관점에서 파생어 형성에서의 의미 문제를 다루었다.

2장에서는 파생 규칙에서의 의미 문제를 다루었다. 파생어의 의미는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

31) 파생 규칙도 제약 중심으로 논의하여 최적성 이론에 입각한 음운론 논의에서처럼 제약의 위반 정도로 규칙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 경우 의미 내지 의미론적인 제약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관련성 때문에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의 의미가 혼란스럽게 기술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이들 각각의 요소들의 의미가 적절하게 구분되어 기술되어야 함을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강조했다.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의 의미 각각이 기술되고 나면 이들의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함수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증해 보았다.

- (22) $X(\text{변수, 어기의 의미}) + Y(\text{변수, 접사의 의미}) + (\alpha)(\text{파생어가 되면서 생기는 변화}) \rightarrow f(X, Y)(\text{파생어의 의미}) + (\beta)(\text{파생어 형성 이후의 의미 변화})$

3장에서는 특히 통사론적인 제약을 중심으로 파생 규칙의 제약과 의미의 문제를 다루었다. 의미론적인 제약이 그러하듯 의미는 파생 규칙의 제약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제약을 위반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파생 규칙의 다양한 제약들을 논의하고 이들 제약의 예외 중에는 의미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보여 주었다. 특히 접두 파생 규칙이나 어휘적 의미가 강한 접미 파생 규칙 등에서 통사론적인 제약의 일종인 단일 어기 가설의 위반이 많았는데, 이런 위반의 대부분은 의미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통사 범주의 통시적 변화나 음운론적인 제약의 변화, 형태론적인 제약에서의 예외 등도 많은 경우 의미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파생어 형성과 의미라는 다소 큰 주제를 다루다 보니 지면의 제한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고 다루었더라도 미진한 부분도 있다. 특히 자질 이론 등 의미 기술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가 없었다는 점과 더 많은 예의 검토를 통한 어기, 파생접사, 파생어의 의미 기술의

실제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 문헌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출판부.
- 구본관(1996/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_____(1998a), 단일 어기 가설과 국어 파생 규칙, 《어학연구》 34-1, 153-174.
- _____(1998b), ‘푸르다’와 ‘파랗다’, 《한국문화》 22, 15-50.
- _____(2001), 접미사 ‘-이’의 종류와 성격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 김광해(1982), 복합명사의 신생과 어휘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8, 5-30.
- 김완진(1976), 노결대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연구총서》 31, 한국문화연구소.
- 김창섭(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국어학》 12, 73-99.
- _____(1984), 형용사 파생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진단학보》 58(이병근의 편(1993)에 재수록).
- _____(1985), 시각형용사의 어휘론, 《관악어문연구》 10집, 149-176.
- _____(1992), 파생 접사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2-1, 72-88.
- _____(1992/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태학사.
- 노대규(1981), 국어 접미사 ‘답’의 의미 연구, 《한글》 172, 57-104.
- 민현식(1984),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95-118.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석주연(1995), 근대국어 파생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132.
- 송철의(1977), 파생어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38.
- _____(1983), 파생어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12, 47-72 .
- _____(1985),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진단학보》 60, 193-211.
- _____(1988), 파생어형성에 있어서의 제약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9, 309-

333.

- 송철의(1989/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신수송(1998), 조어형성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 《어학연구》 34-1, 1-32.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안효경(1994), 현대국어 접두사 연구, 《국어연구》 117.
- 원대성(1985), 명사의 상적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65.
- 이경우(1981), 파생어형성에 있어서의 의미변화, 《국어교육》 39-40, 215-255.
- 이광호(1986), 미지의 '이'를 찾아서, 《어문학》 5(국민대)(이병근 외 편(1993)에 재수록).
- 이병근(1986), 국어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22-3, 389-408.
- _____. 채완·김창섭 편(1993), 《형태》, 태학사.
- 이익섭(1965), 국어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121-130.
- _____. _____. (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재인(1989), '-이' 명사의 형태론, 《이정 정연찬선생 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 이현희(1986), 중세국어의 용언어간말 '-ㅎ-'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_____. (1987), 중세국어 '돌집-'의 형태론, 《진단학보》 63(이병근외 편(1993)에 재수록).
- _____. (1997), 중세국어 강세접미사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문학논고》, 태학사.
- 임지룡(1993), 원형이론과 의미의 범주화, 《국어학》 23, 41-68.
-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167-196.
- 정원수(1991), 국어의 단어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남호(1988), 현대국어 파생접미사 연구 : 생산력이 높은 접미사를 중심으로, 《국어연구》 85.
- 조일규(1993), 국어이름씨 뒷가지의 변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현숙(1989), 부정접두어 '無, 不, 未, 非'의 성격과 용법, 《관악어문연구》 14, 231-252.
- 하치근(1989/1993), 《국어파생형태론(개정증보판)》, 남명문화사.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Mass): MIT Press.

- Chomsky, N.(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 In R. Jacobs and P. S. Rosenbaum ed.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Ginn. Waltham(Mass): Blaisdell.
- Lyons, J.(1977), *Semantics 1,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alise, s.(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 Foris Publications.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공]

E-mail : bonmorph@ewha.ac.kr

접수일자 : 2002. 2. 25.

게재 확정 일자 : 2002. 4. 20.

is noted, however, that there are many non-stative verbs which do not allow the derivation of the resultative aspect, regardless of their intransitive or transitive character. Therefore, the derivation of the resultative aspect is restricted only to the verbs denoting the changes of the state of affairs. It is also notified that the theme argument undergoing the changes of the states of affairs should be changed either positionally or qualitatively.

The Role of Meaning in Derivation, [Koo Bon-gwan]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구본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emantic issues relating to derivational word formation in Korean, based on the basic assumption that all the linguistic phenomena are described by rules and certain constraints. Chapter 2 deals with the semantic issues in derivational word formation. In discussing these issues, we distinguish the meaning of derived forms from that of bases or affixes. Chapter 3 deals with the constraints and meanings in derivational word formation. There are exceptions, regarding the constraints on derivational rules. Some of these exceptions are originated from the active role of meaning.